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18)(1/14/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9 장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참음으로써 진정으로 인내한 자로 인정받음, 1-5 절

히 12:4 -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 11:37 -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1. <그리스도> 아들이야, 지금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불평하기를 그치고, 나와 나의 성도들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라. 아직 너는 죄에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히 12:4). 무수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나, 지극히 큰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나, 너무나 큰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호된 시련과 괴로움을 겪은 사람들에 비하면,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작은 것이다(히 11:37). 다른 사람들이 겪은 더 혹독한 고난들을 떠올리고서,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그 고난을 좀 더 쉽게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겪는 고난이 작아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그 원인이 너의 조급함이나 참지 못함 때문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라. 네가 겪는 고난이 크든지 작든지, 네게 닥친 모든 고난을 인내로써 감당하려고 애써라.

2. 고난을 더 잘 감당할수록, 너는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장차 더 큰 상을 받게 된다. 마음과 몸이 고난을 감당할 각오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고난을 감당하는 일은 더 쉬워진다.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저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욕을 먹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를 비난하여 내게 큰 해악을 저지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내가 마땅히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할 일로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나는 그러한 욕이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내의 미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거나, 인내하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과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자기 생각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감수하고, 자기를 혼낼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질책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인내가 아니다. 참된 인내는 자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일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윗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동료나 아랫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악하고 비열한 자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누구로부터 온 것이든 가리지 않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 또한,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자주 온다고 하여도,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서 감사함으로 받고, 큰 유익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싸우지 않고서 인내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난 받고자 하지 않는 것은 면류관을 거절하는 것이다.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여라. 힘든 수고 없이는 안식도 있을 수 없고, 싸움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다.

5. <제자>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본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오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가능하게 해 주소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작은 역경을 만나도 얼마나 금세 넘어지는 존재인지는, 주께서 잘 아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내 영혼에 지극히 유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겪어야 하는 온갖 환난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소서.

말씀과 해설: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이러 저러한 삶의 문제 속에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인간이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님도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비록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언제나 길을 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음을 증거한다. **고전 10:13 -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고난에 직면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며 돌파한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장’으로 일컬어지는 히 11 장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그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며 이긴 사람들임을 알게 한다. **히 11:35-38 -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그들의 믿음은 고난을 이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돌파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나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아울러 위의 말씀은 삶의 문제로 힘든 마음이 들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 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이기라고 권면하는 듯하다. 인간은 비교의 존재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부정적이고 왜곡된 비교는 내려 놓고 긍정적이고 유익한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비교, 불필요한 비교는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거나 반대로 열등감과 낙심과 상실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비교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영성과 믿음의 삶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생각하고,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승리한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큰 도전과 용기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디며 승리한 신앙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으신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역시 그들처럼 극복하고, 그들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목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삶, 사역, 고난을 깊이 목상하며 그분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히 12:2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목상하며 본받는 사람은 변함없으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히 4:15-16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을 깊이 목상하며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뚫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영적 승리에 대한 보답이 주어진다. 히 10:32-36 -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33.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 12:11 -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복잡한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깊이 목상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상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와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보다 훨씬 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나 자신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 우리가 속한 미국장로교와 교단 내의 한인교회 연합체인 NCKPC 에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